



Holy Love

한글판
THE MAGAZINE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성지



“거룩한 사랑에 반하는 진리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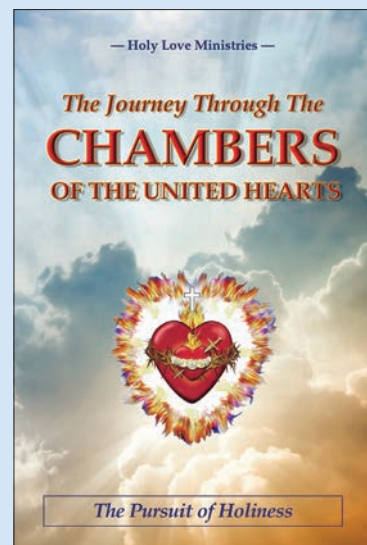
하느님의 자비 축일

- 2019년 4월 28일 -

4 페이지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10 페이지



신간 소식
8 페이지



5월 화관식
9 페이지

온라인 생중계 방송

매일 저녁 기도 모임 - 동부 시간 오후 7시

www.holylove.org

Holy Love Magazine은 ‘거룩한 사랑’과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영적 여정’을 세상에 보다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일 년에 두 번 출간됩니다.**

2019년 1월 - 6월

제6권. 제 1호.

- 2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성지 - "거룩한 사랑에 반하는 진리는 없다"
- 3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적 기쁨의 축복'
- 4 하느님의 자비 축일
- 8 신간 소식 - 심방들을 거쳐가는 여정
- 9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축일 - 5월 화관식
- 10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 12 생명을 위한 행진 (March for Life)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웹캠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신청: 440-327-5822
기도 청원 신청: 440-327-8039
이메일 주소: mamshl@holylove.org
기도 신청 이메일 주소: prayers@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Holy Love Magazine: magazineeditor@holylove.org
웹사이트: www.holylove.org
www.holylovekorean.com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성지 “거룩한 사랑에 반하는 진리는 없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교파를 초월한 에큐메니컬 선교회이며 성지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사업과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찬양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적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두 계명입니다. 이것은 곧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며, 복음 메시지의 실현이자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는 목격 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십니다. 환시와 발현, 메시지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후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성인이 거의 매일 모린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모든 이를 사랑 안에서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선교사업의 목적과 초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부 메시지입니다.

“이 선교사업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와 이곳에서 풍부하고 명백하게 나타나는 수많은 초자연적인 은총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영향을 주어야만 한다. 이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모든 국가들과 모든 이데올로기의 회심을 가져오기 위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 2011년 9월 15일 / 자정 기도 모임)

“이 선교회와 성지, 그리고 메시지는 모든 이가 영감과 은총과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이는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 가득한 이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며 유일한 목적은 오직 사람들이 마음에서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비워내게 함으로써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긴 영혼 안에서는 군림하지 못한다. 거룩한 사랑보다 온갖 걱정을 더 앞세우는 마음에는 진리를 위한 자리가 남아 있지 않다.” (예수님 - 2012년 1월 17일) ■

하느님 아버지의 '부성적 기쁨'의 축복 Blessing of Paternal Joy

- 2019년 4월 15일 -
성주간 월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이 선교회에 부성적 기쁨(Paternal Joy)의 은총을 맡긴다. 나는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 영원하신 아버지의 명령으로 너희에게 파견되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혼들을 지탱해 줄 기쁨이다. 이것은 마치 너희가 기댈 수 있는 아버지의 어깨와도 같다. **이 은총은 영원하신 아버지께 바쳐진 작은 성지(경당)에서 아낌없이 베풀어질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그곳에 가거라. 아버지께서 너희를 환영하실 것이다.”

- 2019년 4월 17일 -
성주간 수요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태고부터 나는 내 부성적 기쁨의 축복을 이곳 성지에서 베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나를 공경하기 위해 세워진 작은 성지(경당)에서 이 축복을 아낌없이 베풀다. **영혼은 오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 경당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영혼은 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영혼에게는 저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축복은 한 번만 주어지며, 그것은 영혼의 남은 생애 동안 충분할 것이다.**”

- 2019년 5월 1일 -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 작은 경당에 처음 들어오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기만 하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부성적 기쁨(Paternal Joy)’을 넣어줄 것임을** 다시 한 번 너희에게 말해준다. 경당의 크기가 좀 더 커진다 하더라도 내 ‘부성적 기쁨의 축복’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내 축복은 경당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신성한 뜻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 2019년 5월 16일 -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내 자녀라 부르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태내에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돌보았다. 이제 나는 내가 가장 특별한 은총을 베푸는 이 기도 성지로 너희를 부르고 있다. **한 초라한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와 내 ‘부성적 기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 축복은 오직 내게 봉헌된 이 건물에서만 베풀어진다.”

- 2019년 6월 1일 -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작은 경당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기쁨 즉, **내 ‘부성적 기쁨의 축복’은 다가오는 8월 (2019년 8월 4일 -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 내 현존이 지상에 임할 때 더욱 강력해지고 깊어질 것이다.** 나는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애정어린 신심을 확립하고,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려울 때 나의 중재에 의지하도록 이끌 것이다.**” ■



하느님 아버지 경당
- 2019년 4월 28일 -

하느님의 자비 축일

- 2019년 4월 28일 -

하느님의 자비 주일

하나되신 성심의 성지에서 열린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다. 나는 하늘과 바다와 지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다. 바로 내 손에 의해 인간이 창조되었고

고 또 존재하는 것이다. 나는 별과 행성들, 그리고 지상의 모든 것을 저마다 제자리에 배치해 두었다. 오늘 나는 인류에게, 내게 순명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왔다. 모든 죄는 거룩한 사랑에 대한 위반이다. 너희가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내 정의(심판)의 팔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내 남은 신자들의 기도와 희생이 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있다. 너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너희

의 기도가 평화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중적인 마음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결같은 마음을 지녀라. 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이들의 편이며, 그들을 매우 쉽게 이끌 수 있다.”

“하늘의 구름은 내 햇빛을 가로막는다. 너희 마음속의 죄는 내 은총을 가로막는다.”

“동쪽에 신뢰할 수 없는 덩치가 큰 나라가 있다. 이 나라의 마수는 멀리까지 미친다. 이 나라가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알아낼 수 없는 자유세계의 비밀이란 없다.”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천국의 내 존엄한 옥좌에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어떤 지도자를 따를 것인지, 너희 마음의 애정을 어디에 둘 것인지, 매 현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지혜롭게 선택하여라. 누가 되었던 단일 세계 지도자 아래 연합하지 마라. 내 지도아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어떤 사악한 공모도 지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사악한 공모는 오늘날 전 세계에 아주 많이 널려 있다.”

“오늘 나는 모든 민족을 내 자비로운 성심 안으로 이끌기 위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내 자비는 오직 뉘우치는 마음을 통해서만 베풀어진다. 나는 내 신성한 자비를 인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것이다. 요즘 시대에 인간은 내 자비를 구하지 않으며 마치 절대 심판 받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의 양심을 바로잡아 주어 그들이 내게 자비를 구해야 할 크나큰 필요가 있음을 깨닫도록 해주어야 하는 책임을 지운다.”

“세상은 오직 내 자비의 손에 의해서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내 자비가 인간 존재의 날수와 안녕을 영속시키는 것이다. 내 자비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라.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 보여다오. 내 계명에 대한 순종과 존중으로 돌아오너라.”

“내 자녀들아, 너희를 위한 내 뜻 안에서 계속 일치해 있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언제나 너희에게 가장 좋기 때문이다. 나는 천국과 지상 어디서나 전능하며, 천국과 지상 어디에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내 목소리는 크지만 동시에 작고 조용하기도 하다. 내 은총은 풍부하며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내게 협력하는 쪽을 택하여라.”

“내 자비를 기념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모인 오늘,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사랑 곧, 거룩한 사랑을 통해 내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오라고 다시 한 번 말해준다. 내 신성한 뜻 밖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내 신성한 뜻은 곧 거룩한 사랑이며, 항상 사랑이다. 먼저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 서로 사랑하여라. 이 외의 다른 길은 없다.”

모린이 말합니다. “어떤 손이 사람들 위로 뻗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주님, 모태에서부터 너희를 빚어 만들고, 너희를 먹이고 양육하며, 오늘 이곳 성지로 너희를 데려온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다.”

“나는 너희 모두의 마음에 내 손을 얹는다. 너희는 오늘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을 닦기 위해 너희 마음을 바꿔라. 이제 나는 너희의 청원을 듣고 있다. 내 자녀들아, 너희의 뜻을 내 신성한 뜻에 내맡겨라.”

“이제 나는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체험 사례

2019년 4월 28일, 저는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Patriarchal Blessing)이 주어질 때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관절염 때문에 어깨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X-ray를 찍어보니 어깨 관절이 뼈와 뼈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어깨를 사용하려고 하면 통증 수준은 (10이 가장 아픈 것이라고 할 때) 8 또는 9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통증 관리 치료는 물론 주사도 맞아봤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후 통증이 1, 2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잘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훌륭하고 기적적인 치유를 겪었다고 단언합니다!

아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MSK
North Ridgeville, OH
2019년 5월 3일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 “내 자녀들아, 오늘 나는 어제 있었던 기도 모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도와준 모든 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위해 왔다. 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와 기도 모임을 준비한 모든 이, 그리고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으로 인해 마음이 변화된 모든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이 축복은 이번 해에 한 번 더 곧, 8월 (8월 4일 -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신성한 뜻의 축일)에 있을 아직 승인되지 않은 나의 축일에 주어질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19년 4월 29일)

✚ “내 자녀들아, 나는 지금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받으러 이곳 성지에 오라는 내 부름에 대한 너희의 응답에 매우 흡족하다.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이 축복을 실행함으로써 계속해서 나를 기쁘게 해 다오. 너희는 이제 내 신성한 뜻 안에서 일치되어 있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실을 믿어라... 깊은 거룩함으로 부르는 나의 부름을 듣는 것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그저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받기만 하는 것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 신성한 사랑과 내 신성한 뜻에 감싸인 영혼으로서 응답해야만 한다. 내 축복은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힘을 준다.” (하느님 아버지 - 2019년 4월 30일)

✚ “너희가 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받았으니만큼, 이제 너희 삶을 평가해 보아라. 너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너희는 내 신성한 뜻을 보다 더 잘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내 뜻에 봉헌될 것이다. 또한 너희는 항상 너희 주위에 있고 너희를 이끄는 내 뜻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는 내 뜻이 너희를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내 보호와 내 베푸는 은혜가 너희 삶에서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19년 5월 1일)

✚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내게 더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 지금 이 시대를 선택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기 바란다. 그것이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너희에게 베푸는 이유다. 다른 어떤 세대나 어떤 장소도 이 축복을 얻는 특혜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라.” (하느님 아버지 - 2019년 5월 3일)

✚ “자녀들아, 믿지 않는 세상은 아직 이 메시지들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새들이 아직 모이통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일단 새들이 모이통을 발견하고 나면 온갖 종류의 새들이 이 모이통에 몰려든다. 나는 계속해서 이 메신저(모린)에게 말하고 있으며, 내 사랑 가득한 충고와 심지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내 축복’ 또한 베풀고 있다. 이곳에 주어진 은총의 깊이는 관심 부족에도 불구하고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스스로의 능력보다 내게 더 의지하게 되는 날이 올 때 사람들은 이 메시지들이 제공하는 풍부한 은총으로 몰려 들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19년 5월 11일)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에 관한 설명은 한국어 웹사이트(www.holylovekorean.com)의 ‘주제별 메시지’나 ‘하나되신 성심의 메시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 주일 행사 2019년 4월 27-28일



신간 소식

"영적 여정의 길" 시리즈를 바탕으로 출판된
새로운 서적을 소개합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여정

- 거룩함의 추구 -

올해는 예수님께서 1999년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의 계시'를 세상에 주신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천상이 지금 이 시대를 위해 마련해 둔 '하나되신 성심의 계시'는 구원과 거룩함의 완덕, 궁극적으로 신성한 뜻과의 일치와 심지어 신성한 뜻 안에 잠기는 침잠으로 이끄는 가장 간결한 길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개인적 거룩함의 영적 여정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천상의 호소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수천 개의 메시지들을 통해 이 계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방대한 양의 메시지들 때문에 본 선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처음 접해 본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요구에 부응하고자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훗날 Holy Love Magazine으로 알려진 거룩한 사랑: 널리 알려라 소식지에 2011년부터 **영적 여정의 길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22개의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독자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었으며 2017년 이 시리즈가 끝났을 때 책으로 엮어 출판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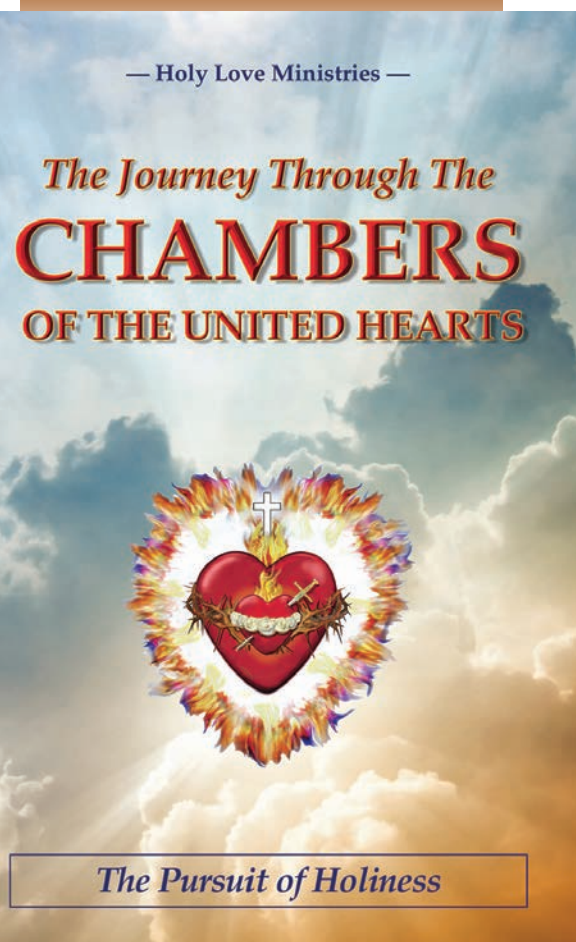
이 목표를 위해 노력한 결과 본 선교회는 '영적 여정의 길'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여정: 거룩함의 추구'**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를 위한, 하나되신 성심의 계시에 대한 기본 안내서이며 영혼들이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이 여정을 최대한 잘 가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책입니다. ■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가격: \$8.95, 배송비는 따로 추가됩니다

전화 주문: 440-327-4532

온라인 주문: www.RosaryOfTheUnborn.com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누이야, 신성한 사랑인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 안에는 많은

심방들이 있다.."

(1999년 10월 16일 -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 축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축일



- 2019년 5월 5일 -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볼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수십년 전 나는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라는 신심을 세상에 주었다. 그 순간 인류 역사에서 너희의 구원과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 분명하게 규정되었다. 너희에게 거룩함의 단계를 보여주는 각 심방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요즘 시대에는 이 신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거룩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내 계명을 받아들이는 여정이기도 하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심방이 바로 거룩한 사랑이다. 거룩한 사랑은 영혼의 모든 죄악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심방은 정화의 심방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은 전적으로 이 첫

째 심방 곧, 거룩한 사랑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거룩한 사랑을 알려주었을 때 나는 영혼들에게 거룩함의 첫번째 단계 즉,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심방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내 신성한 사랑의 빛이 하나된 성심을 에워싸고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내 신성한 뜻을 떠나서는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 전체가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는 내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 칭호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는 너희가 이 칭호를 기념하는 오늘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1티모 4:4-5)





하나되신 성심의 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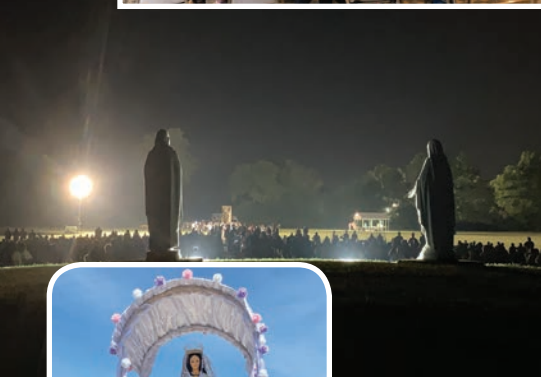
- 2019년 6월 30일 -

하나되신 성심의 성지에서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열린 오후 3시 기도 모임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평신도 형제회 연례 모임



십자가의 길

먼저 하나되신 성심이 보였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언제나 예의바르신 예수님이 오늘은 내게 먼저 말하도록 허락하셨다. 천상이 이곳 성지에서 지상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이유는 온 세대가 진리와 화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지상 생활이 영원한 보상을 얻는 수단으로서 각 영혼에게 주어졌음을 깨닫는 이는 드물다. 사람들은 현세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인간 삶의 참된 목적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 세대는 이것을 목표로 여기지도 않는다.”

“사람으로 하여금 애초에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지를 다시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천상이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질서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증상이 아니라 질병 그 자체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증상은 너희 온 주변에 산재해 있다. 질병은 바로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무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형제자매들아, 우리의 하나된 성심 안에는 모든 생명의 비밀이 들어 있다. 온 창조물이 우리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인간은 여러가지 해결책들을 찾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의 영역 아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자신이 처한 현실과 천상의 해결책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된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야 할 것이다.”

“나의 정의는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하느님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이를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너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의 마음이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일치해 있겠느냐?”

“세상에 우리의 하나된 성심이 알지 못하는 문제란 없다. 그 어떤 자연의 힘이나 추문들, 질병이나 악도 우리의 눈길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

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사악한 계획을 피해갈 수 있도록 선을 인도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쪽을 선택하여라.”

“이 나라(미국)에서 그리스도적 이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악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다. 온갖 논란의 소동은 역효과를 낳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승리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다시금 너희 나라가 세워진 (기초) 즉, 하느님께 대한 신뢰 위에서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

“우리의 성심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어느 것도 우리의 눈을 피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이나 세상의 마음 속에 숨어있지 못한다. 너희에게 말하지만, 세상의 많은 분쟁들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어떤 것들은 진리와 화해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떤 것들은 계속해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애써 마련된 평화 제의의 양상을 바꾸려 할 것이다. 세계 무역에 관해서는 기도에 의탁해야만 할 것이다.”

“평화가 없던 곳에 평화가 존재하고 갈등이 없던 곳에 갈등이 생기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의 국경과 너희 마음의 경계를 굳게 지켜라.”

“너희 나라의 경제는 너희 나라 정부의 안정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미국을 약화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외부, 외국 세력들이 존재한다. 현재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 가지 전략은 너희의 현직 대통령(트럼프)을 공격함으로써 일반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약화된 정부는 경제와 나라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세상의 불행들에 대한 해결책인 기도로 돌아와야만 한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은 사탄의 그 어떤 계획보다도 더 강력하다. 우리는 모든 은총, 모든 자비, 모든 사랑이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의지하는 것이 지상의 불행들에 대한 해결책이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보속하여라.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 오류들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이 약속을 준다: 나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상봉을 모셔 놓고 공경하는 모든 곳에 축복을 내릴 것이다. 오늘 우리는 모든 청원을 우리의 성심 안으로 가져간다. 어떤 청원들은 이례적인 방식으로 응답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화이트 마돈나 국제 경당



자정 기도 모임



생명을 위한 행진에 참가한 태아 목주

워싱턴, D.C. - 2019년 1월 18일

올해로 46주년을 맞은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 워싱턴 D.C.에서 2019년 1월 18일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르네상스 호텔(Renaissance Hotel) 엑스포 센터(Expo Center)에서 열리는 관련 전시회에 태아목주가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방문객들이 태아 목주 전시장을 찾아주었는데, 자기 나라로 돌아가 태아 목주를 나눠주려는 열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나라에서 태아 목주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리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2001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태아 목주가 전 세계로, 아주 먼 곳까지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태아 목주 전시회

“태아 목주를 들고 있는 남자는 스코틀랜드에서 왔습니다. 그는 ‘생명을 위한 행진’의 분위기를 체험하고자 학생들을 단체로 데려왔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우리 나라(미국) 국민들의 불굴의 인내와 단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전시회와 태아 목주를 매우 좋아했으며, 태아 목주를 스코틀랜드로 가져갔습니다.”

“저희는 스위스에서 매년 오시는 신사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은 오시면 꼭 저희 테이블에 들어서 물건을 구매하십니다.”

“저희는 오스트리아에서 온 여자 한 분에게 태아 목주와 관련 자료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는 생명을 지지한다’의 전시회의 책임자는 자신의 휴대폰에서 나이로비(Nairobi, 케냐의 수도)에서 태아 목주를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 이태리 - 2019년 5월 18일

9주년 연례 ‘생명을 위한 행진’이 2019년 5월 18일 이태리 로마 시에서 열렸습니다. 아일랜드의 노크 (Knock) 시에서 온 태아 목주의 유럽 대표단이 태아 목주를 홍보하며 이 행진에 참석했습니다. ■



The Rosary of the Unborn
Changing Hearts...one Prayer at a time.



확대된
목주알



태아목주 (5단)



짧은 태아목주

www.RosaryOfTheUnborn.com

주문: 440-327-4532 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태아목주 (5단) - \$29.95 짧은 태아목주 - \$14.95

*표시된 모든 가격에는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